Ⅰ. 모스크바 지사

□ 경제 동향

○ 5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.24일자로 0.5%인하한 14.5%로 유지하였음. 러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, 추가 금리 인하 여지는 크지 않다는 신중한 입장임

○ 5월 외환시장은 1달러 당 71~74루블 수준으로 강세를 보였음. 이는 3월 말 대비 루블 가치가 약 5%~7% 정도 사승한 것으로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, 수출 증가 및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본 유입의 결과로 루블 강세 현황이 지속되고 있음

□ 국내외 관광 정책

○ 러시아 정부(경제개발부)는 국가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1조 2천억 루블로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

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외래관광객 1600만명 유치, 연간 1억4천만회 국내여행, 관광산업 GDP 기여도 5%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음

이를 위해 관광업계 인센티브 지원, 관광 클러스터 조정,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이 주요 실천 전략으로 진행될 예정임

□ 아웃바운드 동향

○ 26.5월 연휴(4월 말-5월 초)의 러시아인 해외여행 예약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% 감소. 이는 중동사태에 따른 여행심리 위축 영향과 단기로 분산된 연휴

분포에 따른 해외여행 자제 심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

○ Sletat.ru 발표에 따르면, 5월 하계상품 예약건수는 4월 말 대비 6%증가하는 등 하계 휴가시즌은 환율 효과 고려 추가적인 증가세 예상하고 있음. 이는 루블화 초강세(23년 3월 이후 1달러 당 73루블선 회복)를 보임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를 자극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

○ 방한 관광의 주요 항공 노선인 러-중간 여름 항공 운항 예정 편수는 작년 동기 대비 약 33% 증가한 270-285편으로 증가 예정임

- 러시아 14개 주요도시에서 중국 17개 도시 대상 직항편이 운영되며, 이는 중국을 경유한 방한 관광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
○ 반면에 26년 여름 전체 해외로의 항공 운항 노선망은 31~32개국 대상 예정으로 동계 운항 노선망 43개국 대비 25%감소함. 주요 요인은 유가 및 지정학적 요인, 중동사태로 인한 일부 노선 폐쇄 등으로 분석됨

○ 26년 여름 성수기에 러시아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 목적지는 중국과 베트남으로 분석됨

- Sletat.ru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시아 전체 여름 여행 판매량 의 48.1% 차지. 전년 대비 베트남 여행 수요는 3.5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
  - 주요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의 베트남의 아시아 매출 비중은 훨씬 더 높아 FUN&SUN , Anex , Coral Travel은 각각 여름철 아시아 여행 매출의 70%, 87%, 83%를 베트남에서 차지하고 있으며, PEGAS Touristik 은 72.3% , Spectrum Group은 약 50%를 차지함. 스페이스 트래블, PAC 그룹, 코로나 트래블은 각각 30%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

- 주요 성장 요인은 항공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, 러시아 15개 도시에서 나트랑으로 가는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음

* 아에로플로트 정기 노선 운영 외 Anex, PEGAS Touristik, Coral Travel, FUN&SUN, Intourist에서 전세기 운영 중

- 중국과 러시아 정상간 러시아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합의하였으며, 러시아관광협회(ATOR)에 따르면,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관광객 수는 2026년까지 2.5배 증가 예상하고 있음

- Space Travel에 따르면 , 올해 1분기에만 러시아 관광객의 중국 방문 수는 2025년 마지막 3개월 대비 62% 증가. 실질적으로는 38만 건의 여행 증가에 해당하며, 이는 중국의 성수기가 시작되기도 전의 수치임. 이 추세를 연간 전체로 환산하면 2026년 말까지 관광객 수가 150%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
- 그 외, 펀앤선 (FUN & SUN) 은 26.9월 비자 면제 이후 중국 여행 상품 판매량이 5배 증가, 러시안 익스프레스는 2~2.5배 의 성장 전망함